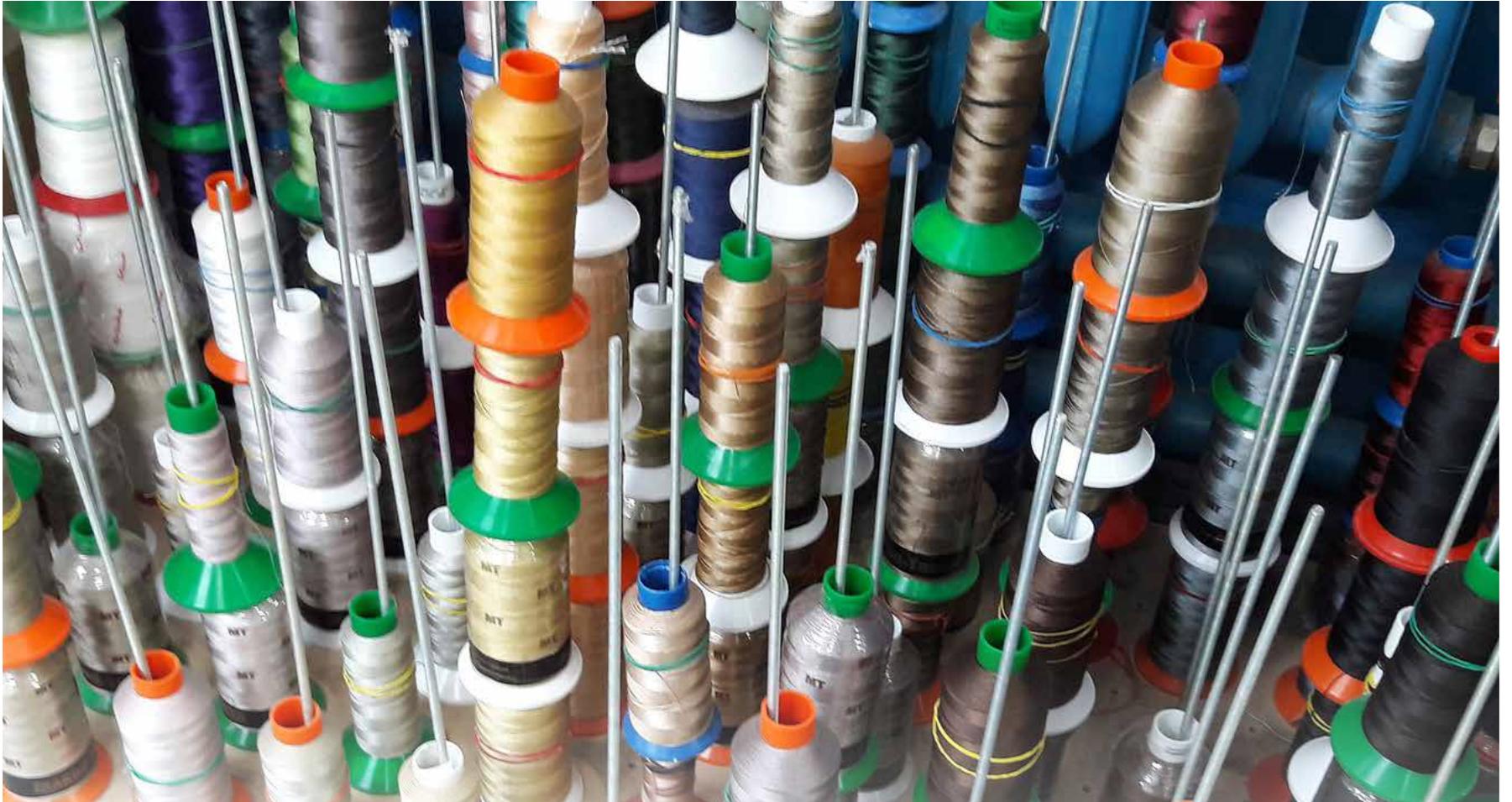




印尼 섬유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22년 11월까지

한국 봉제산업 선도하는 KOGA Vol. 31



**어둠이 너무 길다! ...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
하지만
분명 그 끝은 곧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印尼 섬유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22년 11월까지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5월 29일, 해외에서 수입하는 커튼과 방직사 등의 섬유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5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의 기한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이 27일 세 개의 재무부장관령에 서명, 시행했다.

이 중 재무부장관령 '2020년 제54호'는 커튼을 포함한 커튼 제품, 차양, 침대용 모기장 등의 수입에 대해 올해 11월 8일까지 1kg 당 4만 1,083 루피아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 후 2021년 11월 8일까지 3만 4,961 루피아, 2022년 11월 8일까지의 1년간은 2만 8,839 루피아로 단계적으로 감액한다.

'2020년 제56호'는 재봉사를 제외한 합성섬유원사에 대해 올해 11월 8일까지 1kg 당 1,405 루피아, 2021년 11월 8일까지 1,192 루피아, 2022년 11월 8일까지 979 루피아의 관세를 부과한다.

'2020년 제55호'는 기타 섬유 제품에 대해 최대 1만 1,426 루피아의 관세를 최초로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줄인다.

다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여러 나라가 세이프가드에서 면제되고 있으며 커튼류와 합성섬유사에서는 한국과 홍콩이, 섬유 제품에서는 인도와 베트남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협회(API)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섬유 제품의 수입 동향을 조사해 왔다. 무역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섬유 제품의 수입량은 74% 증가했고, 2018년에는 41만 3,813톤이 수입되었다. 특히 합성섬유사 2016~18년의 3년간 수입량이 2배로 늘었다고 한다.

자카르타경제신문

무역장관, 쇼핑몰 등 상업시설 뉴노멀 보건수칙 회람 발행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바이러스 재생산지수 1(Rt<1) 이하 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의 운영 재개를 허용했다. 이에 따른 상업분야 뉴노멀 보건수칙 적용에 관한 통상장관 회람 '2020년 제12호'를 5월 28일자로 발효했다.

이 회람은 시장, 미니마트, 슈퍼마켓, 하이퍼 마켓, 백화점, 레스토랑, 식당, 노점식당(와룽), 약국, 의료 판매점, 쇼핑몰, 스파, 오락·관광시설,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등등에 적용되는 뉴노멀 수칙을 정했다.

특히 쇼핑몰은 방문객(정상수준 대비) 35% 이하로 입장 제한, 입구에서 체온측정(37.3°C이하), 방문객간 1.5미터 이상 거리유지, 판매원의 마스크와 페이스실드, 장갑 착용 의무화, 쇼핑몰 입구에 세정시설 설치, 손소독제 분사, 출구·입구 분리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방문객을 정상수준 대비 40% 이하로만 받을 수 있으며 방문시간 제



한, 체온측정, 방문객간 거리유지, 방문객 마스크 착용, 종업원 건강상태 수시 확인 등을 지켜야 한다.

한편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아마드 연구원은 "상업시설 등의 영업 재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며 "최근 신규 감염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노동부, 172만명 이상이 자택 대기 또는 해고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택 대기 또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전국에 172만 2,95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해고 노동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현지 언론 끈판 5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택 대기 중인 정규직원은 103만 2,960명, 해고는 37만 5,165명이며,

비정규직의 해고 또는 고용 중단은 31만 4,833명이었다.

노동부의 소에스 홍보국장은 "172만 2,958명은 검증된 확정치이다.이 밖에 120만 명이 자택 대기 또는 해고된 것으로 나타나 신분등록번호(NIK), 휴대전화 번호 등 확인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의 밀라 대표는 "정확한 해고자 수를 집계 중이다. 전국 각지의 정보를 취합하고 검증한 후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리 장관 "PSBB 경제적 타격 인정... 경제성장 1%라도 유지할 것"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광범위한 활동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위축되었음을 인정했다.

스리 장관은 정부가 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는 재정 부양책을 만들어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지 매체 펨보에 따르면, 스리 장관은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0% 이상, 1%에 가깝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도입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으로 2분기

까지 큰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677조 루피아의 경기 부양책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인 영역으로 이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스리 장관은 "2분기는 PSBB로 인해 하락하겠지만 3·4분기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서 경기가 호조권에 진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Telp. : +62-21-797-6237
 Jl. MT. Haryono Kav. 62 Fax : +62-21-797-6015
 Jakarta, 12780, Indonesia E-mail : kor@f1-logix.com

“인도네시아내 중국인 노동자들, 지하디스트의 테러목표 가능성”

알카에다 출신 테러전문가 “다수의 지하디스트 그룹, 잇단 공격 주문”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중국 당국의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내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처우 문제 등으로 인도네시아 내 중국인 노동자들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인도네시아의 테러 전문가인 소프얀 차우리는 다수의 지하디스트 그룹들이 최근 몇 주 사이에 ‘방대한’ 테러 공격 주문을 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내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소프얀은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의 동남아 조직 간부로 활동하다 5년간 복역을 마치고, 전향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反)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인물이다.

SCMP에 따르면 소프얀은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인 ‘급진주의와 탈급진주의 연구 센터’ 주최로 열린 웹 세미나에서 “몇몇 지하디스트들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을 불태우거나 중국인들을 상대로 강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국가(IS) 연계 테러조직인 ‘자마 안사룻 다울라’(JAD) 등이 페이스북이나 다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6개월 동안 지속해서



이러한 테러 공격 주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슬람 사회인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려 온 반중국 정서와 중국 당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처우 문제, 코로나19에 따른 반외국

인 정서 등이 결합해 인도네시아 내 중국인 노동자나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 명

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이슬람교도들

대상으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자카르타 코로나 준봉쇄 연장 ... “6월 전환기, 규제 순차 완화”

중앙정부 ‘뉴노멀’ 경제활동 재개 요구에 주 정부 절충안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 내 바이투라힘사원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궁 웹사이트]

인구 1천만명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준봉쇄 조치를 연장하되, 6월을 전환기로 설정하고 규제를 순차 완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만8,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7,623명(27%)이 자카르타 거주민이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4일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연장하고, 6월을 전환기로 설정했다”며 “전환기는 내일부터 시작해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자카르타 일부 지역은 이미 (감염 규모별) 녹색이나 노란색 지역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적색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를 2,741개 지역으로 나뉘었을 때 66개 지역이 적색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는 자카르타의 코로나19 재생산지수(R0)가 0.99로 떨어져 감염 확산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생산지수는 환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몇 명이나 감염시키는지 전파력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아니스 주지사는 “자카르타 진·출입을 규제하고, 이동도 계속 통제할 것”이라면서 순차적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오는 5일부터 예배당 활동은 보건지침을 강화하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8일부터 자카르타 지역 사업장의 활동을 수용인력 50% 복귀를 조건으로 허용한다.

쇼핑몰 내부가 아닌, 독립된 식당과 상점도 같은 조건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자동차의 탑승 인원은 한 가족이 탈 때를 제외하고는 50%만 태워야 한다. 적색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토바이 택시가 다시 승객을 태울 수 있다.

15일부터는 쇼핑몰과 비식품품 시장의 영업을 재개하되 수용 인원 50% 출입을 조건으로 설정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규제 완화 계획은 감염자 증가 시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카르타는 4월 10일부터 2주 동안 PSBB를 시행한 뒤 4주 연장했고, 이날까지 다시 2주 연장해 총 8주간 적용했다. 자카르타는 PSBB를 적용하기 이전에 이미 3월 23일부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지사령으로 영화관, 술집, 스파, 나이트클럽 등 영업을 중단했다.

PSBB 적용 지역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필수업종의 재택근무 전환, 차량 탑승 인원 50% 제한, 매장 내 식사



▲ 뉴노멀을 준비하는 자카르타지방경찰청 [Polda Metrojaya]

금지, 예배당 내 종교활동 금지 등의 제약이 따른다.

일상생활이 마비된 지 두 달이 넘으면서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에 적응하자”며 보건지침을 강화하되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조코위 대통령과 중앙정부 장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 백신이 없는 한 우리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며 경제활동 재개 의지를 비친다. 백화점과 식당들은 자카르타의 PSBB가 끝날 것으로 보고 영업 재개를 준비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이날 PSBB를 연장하되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하겠지만, 감염자가 증가할 경우 다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자카르타 근교 반뜯주, 주내 3개 지역 출입을 허가제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근교의 반뜯주는 주내 3개 지역(팡으랑시·군, 남부 팡으랑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이달 14일까지 실시되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주지사령을 발령했다. 출입에 새로운 허가증의 취득을 의무화한다. 이들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더 많은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주지사령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1개 시와 2개 군의 주민 이외의 사람이 이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고자 하는 시 또는 군 당국이 발행하는 출입허가증(SIKM)의 휴대 및 제시가 요구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군수령과 시장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자카르타 수도권(자보테파벡) 주민 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 SIKM이 불필요하다고 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린 디아니(Airin Diany) 남부 팡으랑 시장은 성



명을 통해 시의 출입을 희망하는 자는 시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simponie.tangerang-selatankota.go.id>에서 신청하고 발급된 SIKM의 휴대를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주지사령에 따르면 이 밖에 공립학교는 15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계속한다.

한편 종교시설에서의 종교활동은 엄격한 위생기준 하에 재개가 허용되었다.

이 밖에 모든 중앙·지방의 정부기관, 회사, 사무실, 공장도 보건위생 프로토콜 아래에서 활동 재개가 인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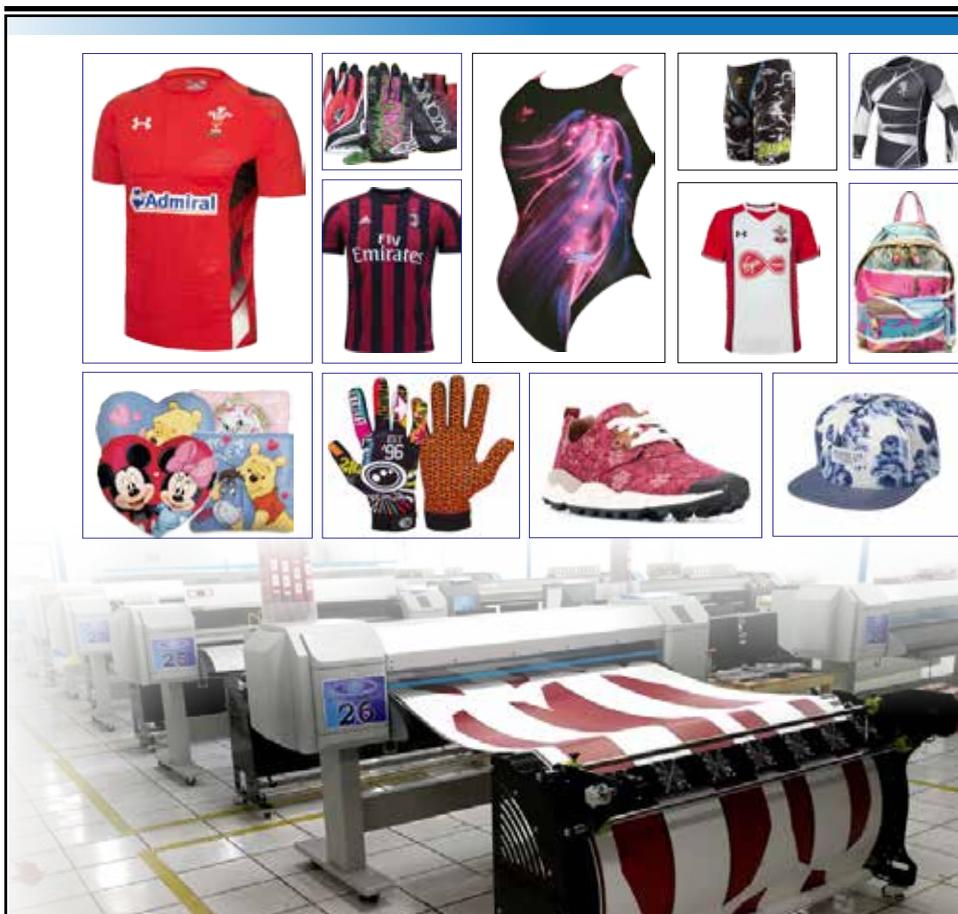
그러나 레스토랑의 영업은 계속해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에 한정된다.

프레쉬 오더

프레쉬오더 생산

스타일당 3~4개 컬러 1만장 이상
컨테이너 베이스
Mens/Ladies/Girls/Boys
캔슬오더/STOCK:대량수령매입

+62 858 1369 4992
6shg10@gmail.com
PT SHINHAN GLOBAL INDONESIA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신한금융그룹,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기부

(주)씨젠, KOTRA와 함께
미얀마, 뉴욕에 이어 세번째 글로벌 진단키트 지원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부에
코로나19 진단키트 5천명 분 기부



▲ 지난 5월29일(금) 신한금융그룹 인도네시아 임원직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국가재난청(BNPP)에서 국내 바이오기업 (주)씨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코로나19 진단키트 5천명분을 기부했다. 사진(왼쪽부터)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박희진이사, 신한증권인도네시아 한일현 법인장,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황대규 은행장,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BNPP) PrasintaDewi 국장,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 이종윤 관장, 신한카드인도네시아 김태정 법인장, 코트라 자카르타 이창현 부관장(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지난 5월29일(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국가재난청(BNPP)에서 국내 바이오기업 (주)씨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코로나19 진단키트 5천명분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신포항 정책의 핵심 국가로 신한금융은 2015년 신한은행이 현지은행을 인수하며 진출한 이후,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도 동반 진출해 현지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금융과 함께 기부에 동참한 (주)씨젠은 세계 60여개국에 미국 FDA승인을 받은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지난 4월부터는 신한금융과 함께 미얀마와 뉴욕 현지에 진단키트를 기부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한금융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내에서의 다양한 지원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통관 및 배송을 맡아 이번 기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이종윤 관장은 “KOTRA는 앞으로도 한국기업들과 함께 CSR, OVOP 활동을 지속 추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재훈의 세무상식

금과 관련한 세금



김재훈 대표

통화 가치의 불확성으로 금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금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세법 규정은 재무부장관령 34호 (PMK No.34/2017) 에 규정되어 있고 금괴 (Emas Batangan) 와 금 보석류 (Emas Perhiasan) 로 구분된다.

금괴는 국영기업(BUMN)인 PT Aneka Tambang (Antam) 의 본/지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금괴는 부가세가 없지만 소득세 PPh22 가 적용이 된다. 구매자가 납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0.45% 납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0.9%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납세등록을 한 구매자가 150그램의 금괴를 구매한다고 할 경우, 150그램의 금괴 가격이 1억이라고 한다면 100,000,000 + 4,500,000 (PPh22) = 104,500,000 을 부담하여야 한다.

납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09,000,000을 부담하여야 한다.

금 보석류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소득세 PPh22 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은 금을 가공하는 자가 금반지등을 판매하는 곳에 금 보석류를 제공할 경우 20% *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금반지를 1,000,000에 판매할 경우 부가세는 1,000,000 * 20% * 10% = 20,000이 되며 세공업체는 금반지 1,000,000에 부가세 20,000 을 포함하여 1,020,000을 금 판매업체에 받아야 하고, 금 판매업체는 이익 포함해서 1,500,000에 소비자

에게 판매한다면 1,500,000 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1,650,000을 소비자에게 받아야 한다. 물론 금 판매업체가 년 매출 48억루피아 이하 영세업체고 부가세과세대상업체가 아니면 1,500,000에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이다.<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i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처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KB캐피탈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인가 ... 영업 시작

KB캐피탈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순인도 국민 베스트 파이낸스’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 이하 순인도 파이낸스)가 설립 인가를 얻어 2일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 주력 분야는 자동차 할부금융이다.

앞서 KB캐피탈은 인도네시아 순모터그룹 금융 계열사인 ‘순인도 파라마 파이낸스’ (Sunindo Parama Finance) 지분 85%를 인수, 순인도 파이낸스를 설립했다.



▲ KB캐피탈 인도네시아 법인 임직원 (KB캐피탈 제공)

순인도 파이낸스는 순모터그룹의 호텔·부동산 사업망을 활용해 신차·중고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소비재 및 오토바이 할부, 렌터카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8천만명에 이르는 인구 규모와 평균연령 28세의 젊은 인구 구조로 인해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통한다.

KB캐피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작년에 팔린 자동차는 약 103만대로 집계됐다. 황수남 KB캐피탈 대표이사는 “라오스 시장에서 조기 안착한 경험을 살려 인도네시아에서도 다양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까지 제거하는 AIR 흡입방식 신개념 유해물질 제거 집진기

설치장소

Clean Room/식당/병원/호텔/공장/백화점
빌딩/마트/학교/극장/터미널/관공서/방송국
공연장/박물관/발전소/전시장/은행/지하철

에어맥스 클린매트

제품 특징

1. 순간 에어 흡입방식
2. 신발의 미세먼지 차단(눈, 빗물제거가능)
3. 청결하고 깨끗한 업무환경
4. 집진기에 의해 모여진 이물질 처리 용이
5. 외부 충격에 강함

물류대차, 지게차, 주차장 차량출입구 적용가능

AIRMAX CLEAN MAT

별도 공사 없이 시공가능
고객 원하는 치수 주문제작
매트 두께 : 20mm

관련동영상



테스트닉

0811-97-8638
korea_kjj@daum.net
kakataalk ID : dragon88ind
PT.ZEUS Component Indonesia

국방 섬유 국산화 입법 '청신호'

대한민국 군복 중국산 원단 의존...이대론 안된다
성 장관, 성기학 회장 건의받고 적극 협력 다짐
산업부 주최 업계 중간 간담회서 업계 건의 공감
성 회장, 국방부 측 예산 이유 대자 "추가 비용 내가 내겠다" 채근



군 전략물자인 군복류를 중국산에 의존하는 위험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고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방 섬유 국산화 노력이 큰 울림을 주면서 정부 당국의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전방위 관철 노력이 경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군 전략물자의 국산화와 섬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 방안에 섬유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섬유패션 산업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성기학 섬유산업연합회장이 먼저 '국방 섬유 국산화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제기하며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또 성 회장에 이어 한국화섬협회 김국진 회장 등도 부연 설명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 이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성 회장은 "미국의 경우 군 피복류는 물론 모든 군수물자는 화이버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메이드인 USA'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제 "우리나라는 원사나 생지 원단까지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유사시 군 전략 물자 조달에도 중대한 차질은 물론 국내

산업 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리에 대해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군 피복류의 국산 원단을 사용할 경우 전투복과 운동복, 내의 부문에서 연간 5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고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내세웠다.

이같은 국방부 측 미온적인 답변이 나오자 성 회장이 반박 논리를 펴며 "연간 예산 50억 규모 때문에 군 전략 물자를 외국산 원단 생지에 의존하고 국내 섬유산업 일감 부족을 가중시킨다면 내가 사비를 들여서도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외국산 원단 생지를 들여오는 것은 "최저 입찰제에 따른 비용 절감은 물론 상호 통상 협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해 참석한 섬유 업계 대표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같이 섬유 업계 주장과 국방부 측 주장에 간극이 생기자 성 장관이 중재에 나서 국방부 측 입장도 있겠지만 명분과 당위성이 있는 섬유 업계 주장을 가급적 국방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산업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해 일 단락됐다.

한편 군 전투복과 정복, 텐트, 배낭을 포함한 국방 섬유의 연간 구매 규모는 연간 6,000억원(장식구 포함)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미국과 달리 원사·

화이버 원산지와 무관하게 생지 원단을 수입해 국내서 염색 가공·봉제 과정만 거치면 허용하도록 규정을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어 유사시 군 전력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연간 6,000억원 규모의 국방 섬유가 전량 국산화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면방직과 화섬 산업의 소재 기업은 물론 제직, 편직 업체들까지 일감이 늘어나 가동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경찰복과 소방복, 나아가 공공기관 유니폼까지 국산화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연간 조단위의 일감이 국내 섬유산업에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도 국방 섬유 국산화 문제가 계속 거론돼 왔으나 이에 따른 법 개정을 국회 국방위 소속 한 전문위원이 'WTO 저촉' 가능성을 내세워 번번이 좌초됐으나 이 문제는 산업통상부 통상 기획과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군 피복류는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이 문제는 일단락된 상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군인이 버 것이 국내 섬유 산업이 정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상시는 물론 전투 시에 국산 원단 군복을 입지 않고 중국산 원단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 제때에 군복 원단용 생지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전력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명분과 합목적성이 차

고 넘치는 국방 섬유 국산화를 위해 현행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도록 섬유 단체가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력투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문제를 단체 사무국 실무자에 맡기지 말고 섬유 단체장 또는 업계 중진이 데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국방위 여야 위원과 교섭 단체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적이고 다원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카르타 경찰, 만료된 운전면허증 자동 갱신



자카르타 경찰 당국은 운전면허증관리센터(Satpas)의 폐쇄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에 대해 자동 갱신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의 일환으로, Satpas의 혼잡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국영 안파라통신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폐쇄했던 Satpas는 지난달 30일 면허 갱신 수속 접수를 재개했지만, 절차로 인해 주민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자카르타 경찰 교통국에 따르면, 자동 갱신이 가능한 것

은 3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이다. 교통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면허 갱신 절차를 위해 Satpas에 서둘러 올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지난 2일, 동부 자카르타의 Satpas는 면허 갱신 절차를 밟기 위해 모인 주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한 29세 남성은 "새벽 5시 반에 왔는데 대기 번호가 133번"이라며 "직원으로부터는 사람과의 간격을 두고 줄서기를 하는 등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니산 방호복, 국제표준규격 인증 획득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는 국산 의료용 방호복이 국제 규격을 취득했다고 1일 발표했다.

국내 섬유업체는 의료 종사자용의 수요를 우선으로 생산하지만, 추후 해외 수출까지 시야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국산 방호복 생산에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 합성섬유생산자협회(Apsyfi) 등 섬유 관련 업계 단체 외에도 30여개가 협력했다. 그 중에서도 스리 레즈키 이스만(PT Sri Rejeki Isman), 수르야 우사하 만다리(Surya Usaha Mandiri, SUM), APF는 혈액 및 체액과의 접촉에 대한 방호복 국제규격 'ISO16604'을 취득했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각 기업의 생산 수량과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도니 총책임자는 "이 방호복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등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생산했다. 지



금까지 수입하던 소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탁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방호복 뿐만 아니라 'N95' 마스크도 국산화할 계획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품질 검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자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스리텍스는 유럽에 방호복 수출을 준비 중

이다. 이 회사의 이반 사장은 "물론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말하며 "수출국으로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회사의 방호복 월 생산 능력은 50만벌로 생산량의 25%를 수출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섬유업체의 방호복 생산 능력은 5,400만벌이다. 한편, 국내 수요는 1,000만벌이다.

“위기에는 현금이 최고” 인니 젊은이 덜 쓰고 저축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소비에 신중해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질 것을 염두에 두고 비상금을 늘리고 있다고 4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영어강사 노르마 솔리카(28. 여) 부부는 향후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 새 가구 구매 계획을 취소했고, 휴가도 연기했다. 그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시행에 따라 채택근무를 시작한 3월부터 음식을 거의 배달하지 않고 직접 조리해 먹었고 필수품은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샀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노르마는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예산을 짜서 현명하게 쓰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감소하거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지혜롭게 돈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소비자지출이 올해 최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 소비자신뢰지수(IKK)는 지난 4월에 84.8을 기록해 지난 12년 이래 가장 낮았다. IKK가 100이 넘으면 향후 상황을 낙관하고, 100 미만이면 비판한다는 의미이다.

경제개혁연구소(CORE)의 모하맛 파이살 대표는 올해 2분기에 소비자 지출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지출 증가율이 2019년 1분기에 5.01%에서 2020년 1분기에 2.84%로 감소했다.

파이살 대표는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현재 중저소득계층이 지출을 크게 줄였고, 중상소득계층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우려해서 불필요한 지출과 투자를 연기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계은행(WB)은 ‘야심 찬 인도네시아 성장하는 중산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인구의 45%인 1억1,150만 명이 아직 사회보장제도와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파이살 대표는 “지금 사람들은 투자나 여행을 가는 대신 생존을 위해 저축한다”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여서 지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여긴다”라고 말했다.

닐슨(Nielsen Research) 소비자신뢰도 조사에서, 2020년 1분기에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휴가비와 주식과 뮤추얼펀드 투자 비중을 줄였다.

에스터 크리스틴 나탈리아(26세. 땅그랑 거주) 부부는 비상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뮤추얼펀드 투자 비중을 줄였다. 그는 “유동성과 안전이 중요하다. 지금 같은 위기에는 현금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회사원 리즈끼 아말리아(26세)는 내년엔 부모님과 여행을 가기 위해 저금을 하고 있었다며, 이 저금의 목적을 여행 대신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쓰기 위한 비상금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금을 늘리는 건 잘한 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페르소나(Persona)

J.C. 페니가 파산신청을 했다. 그럴 때가 온 것이다. J.C. 페니는 텍사스 주의 근교 북부인 플레이노에 본사를 둔 미국의 백화점 체인이다. 이 회사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하와이 주를 제외한 49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 865개의 백화점을 운영하여 왔다. 70년대에는 ‘고객이 무얼 원하는지 다 알고 제공한다(We Know What You’re Looking For)’고 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은 고객의 ‘나날이 다 소중한 줄을 안다(Every Day Matters)’를 슬로건으로 내 걸고 왔지만 목표고객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던 것 같다. 사정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외식을 줄이고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집에 가서 해 먹는다. 가족이 배불리 먹으면서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먹는 것을 줄이는데 입는 것이야 사치 아닌가? 어디 의류뿐이겠는가 마는 문화생활은 눈요기로 만족하거나 ‘둘레길’을 걸으면 된다. 그러니 코로나-19로 꿈쩍도 못하게 된 가운데 의류브랜드 제이크루, 최고급 백화점 니만마커스, 저가 백화점 스테이지 스토어스 등이 잇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백화점 체인 로드앤데일러도 도긴개긴이다. 그 간에 126년의 전통을 가진 백화점 체인 ‘시어스’가 파산했고 162년 역사를 가진 대형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향후 3년간 점포 125곳을 폐점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즐겨 입었던 제이크루(J. CREW)에 아내도 만족했다. 날리지 않는 디자인, 고급브랜드에 쓰는 원단과 소재에다 합리적인 가격이라 하이엔드 럭셔리에 틀림이 없었다. 영원히 갈 줄 알았다. 그런데 자라(Zara)와 H&M, 유니클로 등이 나타나자 밀리기 시작한다. 결국에 이달 초,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명품 같은 것을 사서 두고두고 입는 것 보다 유행 따라 한 철, 바꿔 입고 버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가격이 문제였다. 자라는 팔릴 제품을 적당량만 만들어서 재고를 남기지 않았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파악하고 2주면 만들어 내는 자라는 매주 두 번씩이나 신상품을 출시한다. 그것도 미친 가격에..... 그래도 아내의 세일할 때 제이크루를 찾지만 딸들은 자라를 찾는다. 딸과 함께 나가면 언니로 보는 엄마들도 자라의 충성고객이다.

1902년에 시작했으니 118년 역사의 최대 백화점체인 ‘J.C. 페니’ 역시 큰 덩치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해도 850개 점포가 문을 닫으며 매출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직원 8만5000여 명을 해고해야 했다. 가보면 살 것이 없다. 무언가 허전하다. 이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도 또 세계적인 흐름이다. 코로나-19로 나는 홈쇼핑을 한다.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손 소독, 거리 유지 등으로 불편한 쇼핑을 하는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몇 번 누르면 끝이다. 신속한 택배는 문 앞에 놓고 간다. 언택트의 정수다. 손쉬운 주문과 결제에 시간마저 들지 않으니 어찌 백화점이 살아남겠는가? 어디 백화점이나 의류산업 뿐이겠는가?

세월이 흐르면 세대가 바뀐다. 60대가 주류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구매력이 있을지라도 소비에 인색하다.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 있고 자녀나 손주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느라 노후 준비가 덜 된 이들은 쇼핑은커녕 여행을 아등바등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1980~2000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르다. 그들의 부모세대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이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었고 저성장에도 취업절벽에 부딪힌 세대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주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면 되고,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하는 이들은 먹고 입는 것을 간단하고 간편하게 한다. 실속을 차



조기조 박사

린다는 것이다. 입어보니 좋고 먹기에 편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다. 다이아 반지나 명품 가방을 찾지는 않는다. 원룸이라도 간섭받지 않는 공간을 찾아 산다. 남들이 보고 즐겼다는 여행을 더듬어 자유여행으로 즐기고 온다. 아끼고 살지만 하고 싶은 일에는 아끼지 않는다. 분신 같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목소리 난다.

마케팅에서 4P는 오래도록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품질과 가격, 판촉과 유통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는가? 거기다 소비주체인 사람(People)을 중시하고 있다. 정확히는 개인화된 사람들의 모습(Persona)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목소리, 제 멋으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니 사람마다 원하는 그 ‘제멋’에 맞추어야 살아남는 것이다. 디지털의 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속이 보이는 안경이 있다면 모를까.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도서관/인쇄기업 광개토는 고객의 요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20년부터 **디지털프린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량 인쇄는 물론 완벽한 고퀄리티를 제공하고자 **디지털프린트**기를 도입해 고객만족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광개토는 지속적인 고객요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제작 문의 : 021 3002 9087 /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 khong3000@gmail.com

자카르타 두 달 만에 ‘코로나 준봉쇄’ 완화 ... 다시 교통체증

백신·치료제 없지만, 마스크 쓰고 ‘뉴노멀 시대’ 돌입



인구 1천만명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준 봉쇄’ 조치를 두 달 만에 완화했다. 이날부터 일반 사무실과 단독형 상점·식당이 수용인원 50% 제한을 조건으로 문을 열었고, 오토바이 택시의 승객 운송이 재개됐다. 재택근무 두 달 만에 출근길에 오른 한인 주재원 김모씨는 “사무실에 나가게 되니 좋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며 “도로에 차와 오토바이가 가득 차 교통체증이 다시 시작됐다. 다들 마스크를 쓴 점만 빼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배달·포장 영업만 하거나 일시 휴업했던 한식당들도 이날부터 다시 손님을 받는다. 자카르타 시내 차량 흐름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여전히 수월했지만, 수디르만 등 상습 정체 지역은 이날도 시속 20km 미만으로 어그입이 막혔다. 보고르 등 수도권 도시에서 자카르타 시내를 오가는 통근 열차 정차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대기 줄이 만들어졌다. 승차공유 플랫폼 고젝(Go-jek)과 그랩(Grab)은 승객들

이 오토바이 택시를 다시 부를 수 있도록 앱의 관련 메뉴를 활성화했다.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들은 마스크 착용은 물론 등에 비말(침방울) 차단용 플라스틱 투명판을 장착했다.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카디린은 “지난 두 달 동안 음식 배달만 하면서 하루 10만 루피아(8천700원)도 못 벌었다”며 “오늘은 새벽 5시에 거리로 나왔고, 밤늦게까지 최대한 많은 승객을 수송해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는 4월 10일부터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적

용, 8주 동안 필수업종 외 재택근무 전환, 차량 탑승 인원 50% 제한, 매장 내 식사 금지, 예배당 내 종교활동 금지 등 규제를 시행했다. 자카르타 주 정부는 “PSBB를 연장하되, 6월을 전환기로 설정하고 규제를 순차 완화한다”며 지난 5일 모스크 등 종교시설부터 문을 열었다. 이날 사업장·식당 등 영업 재개에 이어 15일에는 쇼핑몰과 재래시장의 영업을 재개한다. 자카르타 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한국처럼 코

로나19 확진자 수가 거의 통제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고 백신과 치료제도 없기에 감염자 폭발 우려도 크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6일 일일 최고치인 993명이 증가해 누적 3만명을 넘었다. 7일에는 확진자가 672명 증가해 총 3만1천186명이 됐고, 사망자는 총 1천851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에 적응하자”며 보건지침을 강화하되 멈춰선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 어선서 바다 뛰어내린 인니 선원 “한국서 일할 줄”

취업 사기·부당 대우...둘이 껴안고 7시간 바다 떠 있다 구조

부당한 대우를 참다못해 중국 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이 7시간 만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이들은 “알선업체로부터 한국의 섬유·철강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약속받았지만 중국 어선에 끌려갔다”며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7일 트리뷴뉴스 등에 따르면 숨바와 출신 안드리(30)와 수마트라섬 북부 출신 레이날피(22)가 지난 6일 오전 3시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사이 플라카해협 바다에 떠 있다가 인도네시아 어선에 구조됐다. 이들은 중국 어선(Lu Qing Yuan Yu 623)에서 5개월간 선원으로 일하다 잦은 구타와 차별 등 부당대우를 참지 못해 지난 5일 오후 8시께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선박이 싱가포르 항구에 입항하기 전 인도네시



아 영해를 지날 때가 탈출 적기라고 판단해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들은 서로 껴안고 바다에 떠 있다가 150m 떨어진 지점에 어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죽을힘을 다해 헤엄쳐 목숨을 구했다. 안드리 등은 까리문섬으로 옮겨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부터 받은 뒤 경찰과 해외근로자 보호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안드리는 “한국의 섬유·철강공장에 취업해 월급 2천 500만 루피아~4천만 루피아

(220만원~350)를 받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대신 싱가포르에서 작은 배에 태워져 중국 대형 어선에 실려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채 일해야 했다”며 “자주 때리고 욕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장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를 마친 이들은 “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두 사람의 탈출 사연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인들은 “언제까지 중국어선의 인도네시아인 선원 착취가 반복돼야 하느냐”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5일 한국의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중국 원양어선에서 착취당했다며 관련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 어선 통상 629호에서 일하다 부산항에 들어온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을 인터뷰해 선원 3명이 배에서 숨진 뒤 바다에 수장됐고, 부산항에 도착한 선원 중 1명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숨졌다고 폭로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소말리아 해역에 떠 있는 중국 어선(Luqing yuan yu 623)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쇠파이프, 유리병 등으로 고문당해 다리가 마비된 뒤 죽었다며 또 다른 동영상도 공개됐다. [연합뉴스]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더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인도네시아, 등교 연말로 연기 검토 ... “프랑스·한국 상황 참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계속되는 상황...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다음 달 중순 새 학년을 시작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교육 당국이 “프랑스와 한국처럼 되고 싶지 않다”며 등교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일간 콤포스 등에 따르면 무하지르 에펜디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더라도 학생들은 한 학기 정도 학교에 가지 않고 원격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며 “12월에 등교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한국이 등교 개학을 했다가 많은 학생이 코로나19에 노출됐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는다”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에 적응하자”며 보건지침을 강화하되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의 코로나19 준봉쇄 조치인 PSBB가 4일 끝날 예정이지만,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PSBB를 연장할지, 아니면 뉴노멀 시나리오를 적용할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신중한 입장

이다.
자카르타 교육청은 PSBB가 해제되고 7월 중순에 개학할 경우 일부 학교만 모든 학생이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과 여러 학교의 문을 열되 학생 절반만 등교하도록 하는 방안, 개학은 하되 원격수업을 하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로나19) 사태로 인한 등교 연기와 관련해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7월 중순 새 학년을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무하지르 장관은 “대규모 사회적제약(PSBB)을 해제하더라도 교육 부문이 가장 늦게 해당할 것”이라며 “아직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수 없지만, 정부가 곧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까지 등교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구스 사르토노 교육부 장관도 “인도네시아의 코로

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학교는 3월 중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개학시기와 등교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인 뒤 순차적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400~700명씩 늘어 전날 기준으로 총 2만7천549명이고, 사망자는 총 1천663명이다.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

해킹 걱정까지 없어야 진짜 보안입니다

HS View의 영상 데이터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합니다

SK의 기술과 하나스타의 노하우로 완성된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 - HS View

HS View를 놓으세요 이제 마음 폭 놓으세요

SK의 기술과 하나스타의 노하우로 완성된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 - HS View

**HS View를 놓으세요
이제 마음 폭 놓으세요**

하나스타의 새로운 스타!
HS 뷰 출시!

Cloud CCTV
HS View

HS View. 이런 사업장에 권합니다!

- 보세 구역내의 수출입 통제 관리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곳
- 도난/사고 예방과 증빙을 위한 고품질 영상 데이터가 필요한 곳
-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곳
- 프랜차이즈, 콜센터 등의 다지점 사업장
- 합리적인 가격의 신규 설치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

HS View. 이것이 다릅니다!

일반 CCTV	VS	HS View
잘못 해킹으로 인한 영상노출 위험	보안/기술력	전문 방화벽이 작동하여 해킹의 위험에서 안전
본체 또는 녹화장비	영상저장	IDC 클라우드 서버
고가의 초기구축비용 유지보수비용	비용	구축비용 없는 월과금 방식

영업문의: 0811 9936 516 / 0811 805 606
기술지원: 021 4000 2436-9

www.hanastar.net.id

2019년 가입 고객을 위한 하나스타의 특별한 혜택: 설치비 무료 + 월 사용료 최대 20%할인 + 무료 테스트 3개월 제공

CWI ERP

한국의 전문개발업체와 함께 개발한
SaaS 기반 ERP

세관 Inventory, 경영분석 지원까지
다양한 패키지

효율적 회계 관리

회계 자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정확하고 효율적 회계 관리가 됩니다

정확한 자재 관리

IT INVENTORY(보세 구역 전산 자재) 시스템 요구 사항을 부합하며 자재 관리가 편리해 집니다.

복잡한 ERP, CWI ERP로 해결하세요!

- 까다로운 인도네시아 세관 승인 획득완료
- 중/소규모부터 메이저급 봉제회사까지 사용가능한 Customizing
- 프로모션 기간 무료사용, 분할납부 등 다양한 가격 옵션 제공

PC현대 구매가격으로 세관 IT Inventory 시스템 사용 가능
2019년 특별 프로모션

www.cyberworld.co.id
데모 사이트

적시 적소성

CWI ERP로 자료 관리를 하여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 분석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분석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견적 요청 / 데모 신청
sales@cyberworld.c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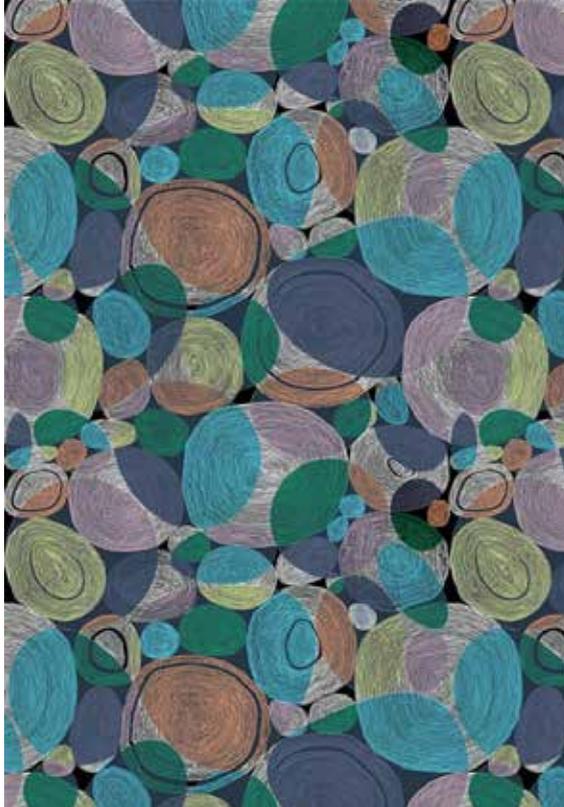
제7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창간 39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육성과 관련 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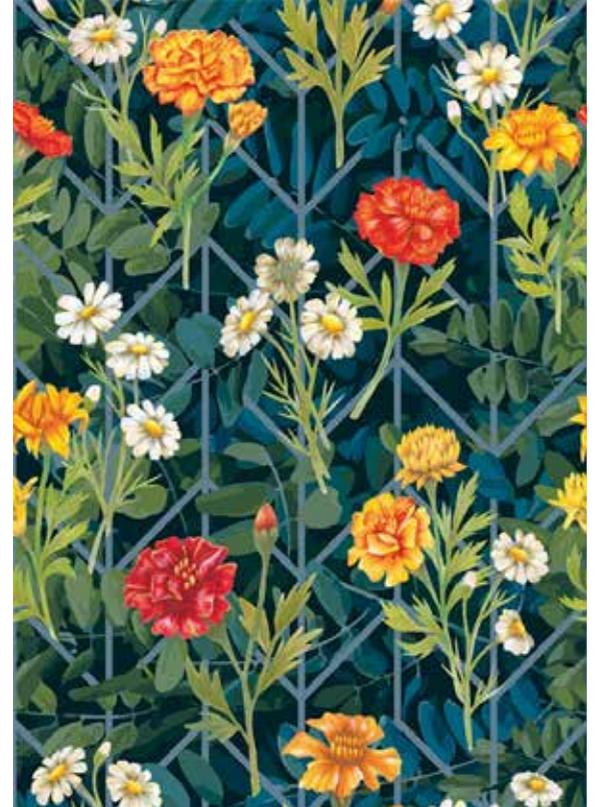
본지 지상전은 수상·입선작 100여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섬유신문



▲ 작품명 : 조약돌과 나무 정현숙 작



▲ 작품명 : full bloom 김예림 작

스파오 냉감속옷 '쿨테크', 전년 동기대비 6배 증가



올해 100만 이상 판매 목표 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의

스파오가 냉감 속옷 '쿨테크' 매출 증가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출시 이후 한 달간 전년 대비 600% 이상 증가했다는 것. 5월 둘째 주 쿨테크 온라인 매출은 전주 대비 10배 이상 성장하며 스파오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이다. 스파오는 냉감 속옷을 여름에만 입지 않고 사계절 이너 아이템으로 활용한다는 고객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말 소재와 기능에서 업그레이드된 쿨테크를 선출시켰다. 작

년에 비해 약 1달 앞선 시점이다. 스파오는 올해 매출이 큰 폭 상승 이유로 심리스와 매쉬 소재 라인업 추가와 아동용 상품을 추가해, 온 가족이 입을 수 있는 라인으로 확장한 점이다. 또 중량을 줄이고 속건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점이 컸다는 분석이다.

'남성용 매쉬 반팔'의 중량은 약 84g이다. 여기에 3D 패턴 설계를 통해 거드랑이 등 접히는 부분을 인체에 맞게 설계해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혔다.

스파오는 현재 매출 증가율에 발맞춰 올해 100만 이상 판매를 목표로 일찌감치 쿨테크 추가 발주에 들어갔다. 쿨테크에 사용된 냉감 원석 소재는 이랜드 섬유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국가공인 시험 기관인 KOTIT시험연구

원(원장 이상락)의 중량과 건조 속도 부분에서 타사 냉감 속옷보다 높은 성능을 입증 받았다.

스파오 관계자는 "작년에 쿨테크를 경험해본 고객들의 재구매가 높고 올해 역대급 더

위가 찾아온다는 소식에 미리 냉감 속옷을 장만하는 고객들 수요가 겹치면서 매출이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국섬유신문

2020 『내가 한국바로알리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이해자료에 대한 관심

높이기 위하여 2020 '내가 한국바로알리의 주인공' 에세이를 공모한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응모할 수 있고 응모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공모주제는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또는 '한국이해자료 활용' 이다.

외국 교육자료(외국 교과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제안 또는 한국이해자료의 활용 후기 및 개발 제안을 내용으로 하면 된다.

공모 신청서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aks.ac.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처는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내용 증설을 위한 '한국바로알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일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포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국가경제회복 프로그램 예산, 677조 루피아 규모로 확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가 편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가경제회복(PEN Pemulihan Ekonomi Nasional)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가 총 677조 2,000억 루피아가 된다고 밝혔다.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641조 1,700억 루피아에서 약 6% 확대되었다.

스리 장관에 따르면, PEN 프로그램 예산의 확대는 사회보장과 법인세 감면 등 기존의 각종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기 때문은 아니다.

스리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기업 활동 외에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 PEN 프로그램 예산으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34%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다만 새 예산 가운데 의료종사자 지원용은 전체의 0.19%에 그치고 있다.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에 따르면, 의료지원을 위한

예산은 10조 4,500억 루피아로, 스리 장관은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시설 등 중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1,205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예산과는 별도로 보건부가 19개 병원과 의료기술 관계기관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41억 2,000만 루피아의 예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우대 정책을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사업 진행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은 지난 5월 11일부터 양성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총 28명의 수강생들이 5~7월 중 세종학당재단 누리 세종학당(Nuri-Sejonghakdang)을 통해 총 120시간(10주) 동안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7~8월 중 오프라인으로 총 20시간의 보충 강의 및 실습에 참가할 예정이다.

교육이 끝난 후, 우수 참가자는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에서 9~11월 수습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은 이번 양성과정이 현지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자생적으로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은

모범적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 세종학당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세종학당재단 직영 학당이다.

대한민국 해외 한국어 보급 대표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현지인과 해외 한국 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로 한국어 교원이 부족한 지역에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본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을 비롯하여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인도 한국문화원, 터키 한국문화원 총 4곳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강의를 수강한 후, 한국어 수업 참관 및 모의 수업 등의 실습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PT. HANSHIN AIR COMPANY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9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Best Quality
Fast Delivery

[주요 브랜드 2020 광고 촬영 스토리 (19)] 당신의 여름 옷장을 채울 옷은?



힐라

뜨거운 여름날 브랜드 뮤즈 김유정은 시원한 양양바다를 배경으로 힐라 상품을 소개했다.

스포츠 스트리트 감성을 더욱 강조한 이번 여름 컬렉션을 양양 서핑샵에서 고르는 느낌으로 화보를 촬영했다. 힐라는 올 여름에도 MZ세대 취향을 적중하기 위해 상큼한 색감을 썼다.

스톤헨지

스톤헨지는 아름다운 순간을 주얼리에 담았다는 '뷰티풀 모먼트' 캠페인을 브랜드 뮤즈 전지현과 함께 진행했다.

여름 화보는 물에 젖은 머리칼과 시원한 푸른색 배경을 더



해 계절을 나타냈다. 이번 화보에서 스톤헨지가 소개하는 주얼리는 스텔라로, 작은 진동에도 흔들리며 반짝이는 스톤이 특징이다.



제이제이지고트

제이제이지고트는 '도심 속 휴양'을 주제로 바캉스 의류

를 제안했다. 이번 화보는 탈출을 뜻하는 ESCAPISM 세번째 컬렉션이다.

랜드 모델 문가영과 함께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실루엣 원피스를 소개한다.



젝시믹스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이 입기 편한 제시믹스는 랩퍼 제시를 브랜드모델로 발탁했다.

젝시믹스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활기찬 모습이 특징인 제시와 여름 라인을 공개했다. 여름제품은 효성과 협업한 X-프리즈마 워터라인으로 물빠짐과 이염이 없고, 자외선을 막는 기능을 더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에스제이그룹, 온라인 비중 높여 실적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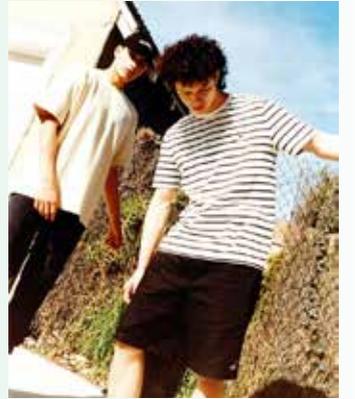
강골키즈 80% 이상 성장

강골과 강골키즈 등을 전개하는 에스제이그룹은 지난 5월26일 현재 누적 매출은 소폭 성장 중이다.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이후 면세점 매출이 떨어졌으나 강골과 강골키즈, 헬렌카민스키의 온라인 비중을 높인 결과다.

코로나 이전 에스제이그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중이 7대 3이었다. 지난 3월부터 온라인 비중을 높인 전략이 적중하면서 면세점에서 빠진 매출을 만회했다. 강골 면세점 비중이 13% 이상돼 전체 강골은 매출이 소폭 성장했다.

강골은 35%대, 헬렌카민스키는 50% 이상 온라인에 집중했다. 그 결과 면세점을 제외하면 강골 매출은 전년 대비 7% 성장했다. 헬렌카민스키는 40% 이상 올랐다. 특히 강골키즈는 전년대비 80% 이상 급성장했다. 지난해 100억원 매출을 올리며 키즈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에스제이그룹은 강골, 강골키즈로 하반기 총 10여개 매장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외시장 확대에 나



실 전망이다. 코로나 19로 해외시장이 활발히 움직이지는 않지만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 러브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영 에스제이그룹 대표는 "상품과 유통 채널 밸런스가 중요하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이 많은 만큼 온라인 강화를 조금 미뤘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골은 한국에서 모자로 시작했지만 전 카테고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유통망에 맞춰 헬렌카민스키도 전 복종이 호응 받을 수 있도록 불륨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섬유신문

"Bringing Eco Fashion Graphics to the World!"

A Leading Printing & Embroidery company

"BW를 비롯 Major buyer Audit 취득"

실리콘 / 줄 / 라바 및 각종 나염인쇄
듀얼 시퀀자수 / 시퀀자수 및 각종 자수
승화전사 / 스톤 / 비드 / 글리터 / 호일 작업
최신 설비 및 기계 완비.



(주) 제일 인도네시아

Bekasi Factory : Jl. Siliwangi Km. 9, Narogong, Kompleks Blue Bird, Bekasi

Subang Factory : Dusun Sidamukti, Wanakarta, Purwadadi, Subang

인니영업담당 : 장태선부장 (HP : 0812-5238-8871 / 021-8261-1020)

E-mail : tsjang02@gmail.com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